

8/30/26

설교 제목: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마태복음 16 장 13-20 절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다(막 8:27-30; 눅 9:18-21)

13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15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20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에 도착하였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예루살렘 서북쪽에 위치한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 가이사랴와는 다른 곳입니다.

이곳은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헬몬 산 기슭에 위치한 아름답고 조용한 도시입니다.

헬몬 산의 눈이 녹아 지하로 스며들었다가 이곳 바위 밑에서 솟아났고, 그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요단강의 주요 발원지 중 하나였습니다.

이곳은 BC 20 년경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로부터 하사 받아 헤롯의 영토가 되었고, 후에 이 지역을 다스리게 된 분봉왕 헤롯 빌립이 도시를 크게 확장하여 티베리우스(디베료) 황제에게 헌정하였습니다.

이곳의 원래 이름은 그리스 신 Pan 의 이름을 따 Paneas(파네아스)였으나 분봉왕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가이사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가이사랴'라 하였고, 가기에 자신의 이름을 더하여 '가이사랴 빌립보'로 부르게 하였습니다.

주민들 대부분이 이방인들로 우상을 숭배했기에 도시 안에는 신전과 조각들이 가득했습니다. 원주민들은 바알을, 헬라계 사람들은 산림과 야수의 신인 Pan(판)을 섬기며 각기 자신들이 믿는 신들의 전을 세웠습니다.

이에 더해 헤롯 대왕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아부하기 위해 황제 신전을 건립해 놓았습니다.

이곳은 팔레스타인을 분할 통치했던 헤롯 가문의 영토였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갈릴리와 어떤 공통점도 발견할 수 없는 이질적인 도시였습니다.

사는 사람도, 그들의 종교도, 생활 양식도 모두 달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가신데는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세속적인 도시 한복판에서 제자들과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당신의 공생애를 중간 결산하고,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 수난 사건을 위하여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 제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을 문답식으로 교육시키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견해를 물으십니다.

13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란 예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실 때 즐겨 사용하신 칭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위격과 성품을 가진 즉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하나님이자 이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심을 암시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14 이르되 더러는 세레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유대인들을 포함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온전한 지식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부활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견해는 대체로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세레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세레 요한은 그들의 기억 속에 예수님과 같은 메세지를 전한 능력있는 영적인 선지자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에서 가장 열성적으로 백성들의 타락과 종교적인 불의를 꾸짖었던 선지자였습니다.

특히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더러는 예레미야라고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린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레미야의 모습을 본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못마땅해 하시며, 이번에는 제자들의 견해를 물으십니다.

15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적극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의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 앞서 천금같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는 자들은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대제사장 왕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참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땅에 보냄을 받으신, 하나님과 하나되신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화려한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 한 가운데 휘황찬란한 신전들 앞에 서서, 한낱 필부에 불과해 보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주 예수에 대한 가장 완벽한 고백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고백 안에는 기독교 신조의 핵심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본질적인 신분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이때 베드로의 호칭을 바요나 시몬으로 부르십니다.

바요나 시몬은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던 요나의 아들 시몬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같은 참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은 그의 인간적인 지혜나 지식, 신분이 탁월해서가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몬이었던 베드로의 이름을 게바(베드로)로 새로이 부여하십니다.

18a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게바’는 아람어이고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시몬을 그의 형제 안드레로부터 소개받아 만났을 때 그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실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 1:42)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성경에 교회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장면입니다.

18b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이 베드로 개인 위에 세우겠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의 대표격으로 진술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특별히 교회를 내 교회라고 지칭하시며,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당신이 메시야로 인정되자, 당신의 백성 곧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신의 메시야직을 드러내신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당신을 따르는 당신의 백성, 당신을 믿고 당신의 피로 확립된 새 언약의 백성만이
당신의 교회 곧 당신의 백성이 된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건축물로서의 성전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의 연합체인 교회를 세우
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기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신 성전, 즉 교회를 만들기 위해
오셨습니다.

실제 주님이 이 말씀에 근거해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들 위에 임하기
시작한 오순절 때부터 였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한 후로, 이 신앙고백을 공유한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근거하여 새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들 위에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로 연합하여 주님의 몸, 즉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교회라 부르지 않고,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지칭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음부의 권세’란 사망을 가리킵니다.

죽음의 세력이 교회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육체적인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문을 깨뜨리시고 죽음의 정복자로서 군림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생존하셔서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보증이 되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영속성의 영원한 지지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메시아로서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와 열 두 사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교회 전체에게 장차 세워질 교회에서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9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로 대표되는 교회에게 천국 치리법과 통제권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어떤 이들에게는 천국을 열어 주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천국의 문을 닫아 버리기도 하는 권한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진리 선포와 사도적 권위에 의한 권면과 신앙 고백으로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에 대한 권징일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서 권징은 사도들 장로들 나아가서 온 교회의 특수한 임무였습니다.

이 권한을 통해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을 더하고 교회를 강건하게 세웁니다.

이로써 원소유자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위탁하신 ‘천국의 열쇠’는 사도들을 위시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인정과 함께 자신들의 사역을 수행하고 그 권위를 세우는데 있어 필수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는 직후,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리십니다.

20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것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땅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경륜과 뜻도 알지 못하고, 단순히 예수님이 행하신 각종 이적과 기사만을 보고 현실적인 필요와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그들은 구약에 예시된 메시아를 단지 자신들의 정치적 욕구를 채워줄 인물로 보았습니다.

현재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혁명 세력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야 할 당신의 사역 노정에 혼선을 빚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의 온갖 우상과 권세가 가득한 가이사랴 빌립보 한복판에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와 같은 훌륭한 선지자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나름 좋은 평가이긴 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었습니다.

반면,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는 성령의 깨우침을 받아 담대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의 고백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시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서는 크게 기뻐하시며 그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여 그 마음 속에 성령님이 거하는 사람, 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맡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권한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믿으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남은 인생을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그분을 나의 주로 그리고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고백만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삶의 주권을 그분에게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